

RESTORE SIGHT · SHARE VISION

VISION CARE

Special Campaign with Eone for World Sight Day -- Ends Oct. 31st *#HopeInSight*



Dear Supporters and Friends,

Our special collaboration with Eone is still on - *through October 31st* - where a part of the sales proceeds during this period will be donated to Vision Care.

[Browse Eone's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And please share our campaign with family, colleagues and friends.
Thank you!

Vision Care USA

See Our Coverage in both Korea Times & Korea Daily!

비전케어 USA, 'EONE' 과 콜라보레이션 캠페인

8일 세계시력의 날 기념, 31일까지
시각장애인 위한 손목시계 판매
판매 수익은 실명 예방사업에 기부

국제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 USA가 8일 세계시력의 날(World Sight Day)을 맞아 시각장애인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디자인 손목시계 브랜드 '이원(EONE)'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캠페인을 진행한다.

비전케어 USA 측은 "세계시력의 날인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력을 되찾고 비전을 나누자(Restore sight, Share Vision)'란 타이틀로 캠페인을 벌인다"며 "모든 판매수익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전케어의 실명 예방 사업을 위해 기부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컬러링 컴피티션(coloring competition)'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EONE 시계를 디자인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희망자는 오는 15일 까지 해당 링크(www.eone-time.com/pages/wsd20)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상자는 이원 브래들리 시계(Eone Bradley Timepiece)를 상품으로 받는다.

EONE은 EVERYONE의 줄임말로 매사추세츠 공대 출신 한인 사업가 김형수씨가 창업한 손목시계 브랜드다. EONE의 시계는 유리 덮개 없이 두 개의 금속



세계시력의 날(10월 8일)을 맞아 국제실명예방기구인 '비전케어'가 'Restore Sight, Share Vision'이란 제하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윗줄 상단 오른쪽 사진은 캠페인 기간 동안 판매될 시각 장애인을 위해 디자인된 'Eone Timepiece' 손목시계. [사진 비전케어]

속 구슬이 장착돼 있어, 사용자가 구슬의 위치에 따라 시계를 직접 보지 않고도 시간을 알 수 있다. EONE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새로운 개념의 시계를

창조해 주목 받고 있다. 김형수 대표는 "세계시력의 날을 맞아 국제 민간단체인 비전케어를 돕게 돼 기쁘다"며 "예방 가능한 실명에 대해 관심을 모으

고 이미 실명한 사람들에게는 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캠페인 목적을 밝혔다.

세계시력의 날은 매년 10월 둘째 주 목요일로, 실명과 시각장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실명예방기구(IAPB)의 '비전(Vision)2020' 캠페인을 위해 제정됐다. 비전케어는 국제실명예방기구 IAPB에 등록된 단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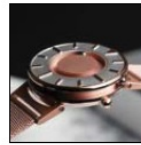
한편 EONE 손목시계는 구매 링크(www.eone-time.com/)를 통해 개당 30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비전케어 USA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visioncareusa.org)를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문의는 이메일(amyahn@vcs2020.org) 또는 전화(917-583-4205)로 하면 된다. **임은숙 기자**

'세계 시력의 날' 맞아 '비전 2020 캠페인' 전개

비전케어·EONE 공동, 31일까지
판매시계 1개당 30달러 실명예방 사업 기부

10월 8일 '세계 시력의 날(World Sight Day)'을 맞아 국제구호기구 '비전케어(Vision Care)'가 세계 제조업체 '이원(EONE)'과 함께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2002년 한국에서 처음 출발한 비전케어는 명동성모안과병원의 안과 의사, 검안사, 간호사 등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의료팀이 파키스탄에서 무료 개안수술 캠프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비전케어 서비스(VCS)란 이름으로 2010년 버지니아에 동부 지부를 설립하며 미국에 진출했고 2011년 LA 서부지부에 이어 2016년 뉴욕에도



지부를 세운 바 있다.

비전케어 USA는 올해 '시력의 날'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이원에서 판매한 시계 하나당 30달러를 비전케어의 실명 예방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다. '에브리원의 줄임말인 '이원'은 매사추세츠공대 출신 김형수씨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개발한 시계 브랜드다. 이 시계는 시침과 분침 대신 시계에 붙은 금속 구슬 두개의 위치로 시간을 알려준다. '세계 시력의 날'은 매년 10월 둘째 주 목요일이며 실명과 시각장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실명예방기구(IAPB)의 비전 2020 캠페인을 위해 제정됐다. www.eone-time.com

Give Today

Vision Care USA, Inc. is a 501(c)(3) tax-exempt organization.
Federal Tax ID Number: 81-1916116

New! Follow Our Instagram Page: [@visioncare.usa](https://www.instagram.com/visioncare.usa)

